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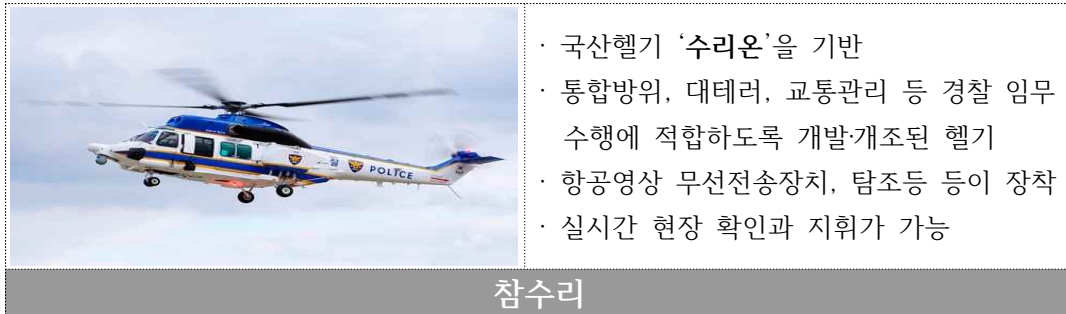


관내 동향

- **하영제 국회의원, 사천시에서 「항공산업 활성화 대토론회」 개최**
 - 하영제 국회의원(사천·남해·하동) 주최로 8월 24일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'위기의 항공MRO 사업 이대로 좋은가?'라는 주제로 항공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
 - 이날 행사에는 사천시장·시의회의장·시의원, 경남도의원, 진주시부시장, KAI·KAEMS 관계자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·단체 임원 등 30여명 참석함
 - 사천시는 △항공제조업이 밀집됨 △국가 지정 사천 MRO 산업단지가 한창 조성중임 △항공기 개발을 위한 인력·기술·시설이 집적되어 입지 여건에 우수함 등을 근거로 **사천시가 항공 MRO 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**
 - 토론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시 △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△국가균형발전 역행 △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목적에 위배 △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항공 산업 악화 초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, **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함을 강조**

- **KAI, 참수리 헬기 471억 규모 공급계약 맺어**
 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2023년 2월까지 수리온 경찰헬기 ‘참수리’ 2대를 경찰청에 납품하기로 8월 18일 계약
 - 계약금액은 471억1천만 원으로 KAI의 2019년 기준 매출의 1.5% 규모
 - 특히 이번에 계약한 ‘참수리’에는 산소공급 장치, 심실제세동기 등이 포함된 응급의료장비(EMS Kit)와 혹서기 환자후송을 위한 냉방 장치가 새롭게 탑재돼 경찰 임무 범위 확대를 기대

- 경찰청은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수리온 기반의 경찰헬기 ‘참수리’를 운영 중이며, 이번 계약을 포함하여 총 10대를 구매



도내 동향

□ 코로나에 날개 꺾인 경남 항공업체, 활로는 ‘온라인 마케팅’

- 경남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테크노파크(경남TP)가 국외 온라인 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
- 경남TP는 10월 포르투갈에서 열릴 '2020 항공우주방산의 날' 상담회를 시작으로,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'디지털 쿠알라룸푸르 국제항공 비즈니스 컨벤션', 12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세계 최대 규모의 에어로마트 행사인 '에어로마트 툴루즈 2020' 등 연말까지 국외에서 열리는 대형 온라인 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
-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항공기업들의 생산물량 격감에 대응하고자, 온라인 상담회 참가비용 전액지원과 함께 맞춤형 통역도 지원할 계획



국내 동향

□ 항공업계, 여객기 좌석 떼고 화물기로 바꾼다

-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 세계 항공업계가 줄줄이 최악의 실적을 내놓고 있는 중, 국내 항공사들이 재빨리 빈자리를 화물로 채운 덕분에 이례적으로 ‘깜짝 흑자’를 올림
-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화물 운송 매출이 증가해 1천485억 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으며, 아시아나항공도 2분기 영업이익이 1천151억 원으로 깜짝 흑자

- 이에 대한항공은 아예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기로 결정하여, 보잉 777 기종 여객기 2대의 객석을 일부 제거해 화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
- 대형항공사 2곳이 화물 부문의 활약으로 깜짝 실적을 내놓자, 국내선 확대에 주력하던 진에어·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(LCC)들도 화물 운송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
- 이런 항공기 개조가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,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친 개조와 함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

□ 한국형 전투기 KF-X, 내년 상반기 공개된다

-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전투기(KF-X) 시제 1호기가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될 예정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9월 3일, 제작이 완료된 KF-X의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의 최종 조립에 착수
-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 중인 KF-X 시제기는 9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됐으며, 향후 10조원이 추가 투입돼 총 120대가 생산될 계획
- KF-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



□ 항공기 정리 나선 항공사들...17년 만에 등록 대수 감소

- 지난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항공기 수가 17년 만에 감소
-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며 항공사들이 신규 비행기 도입을 미뤘을 뿐 아니라, 보유 중인 항공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
-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항공기는 843대로, 지난해 말 853대보다 10대(신규 15대, 말소 25대) 감소

-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, 등록 항공기 수는 하반기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



해외 동향

□ 우주 택시 한번 가는데 650억...그래도 싸다고 환호

- 최근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'크루 드래건'이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, '민간·유인' 우주왕복선으로는 첫 번째 성공을 거둠
- 2014년 나사는 달과 화성 등 원거리 우주탐사에 집중하고 근거리 우주 개발은 민간 기업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을 발표, 우주정거장을 왕복하는 '우주 택시' 개발을 민간 업체인 스페이스X와 보잉에 맡김
- 스페이스X는 나사가 점찍은 지 6년 만에 첫 번째 성과물을 보여줌
- 이번 '크루 드래건' 발사 비용은 5,500만 달러(약 653억 원)로 추산되며, 앞으로 발사 비용은 더 줄어들 전망

□ 드론 택배 현실로 성큼... 아마존, FAA 승인

- CNBC,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(FAA)은 8월 31일 (이하 현지시간) 아마존의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승인
- 이는 아마존이 드론을 조작해 물품을 배달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, 아마존은 무게 2.26kg 물품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드론을 통해 배달할 수 있게 됨
- 아마존은 관련 드론 기술을 확대해 30분 이내 배달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
- 아마존이 FAA 승인을 받으면서, 드론 택배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

작성일	2020. 9. 10.(목)	보고일	2020. 9 18.(금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8)